‘역주 조선불교통사’ 발간

조계종총무원·동국대, 조계사서 경찬법회 봉행

일제강점기 이능화 선생이 저술한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를 93년 만에 처음으로 완역(完譯)한 책이 발간됐다. 동국대에서 펴낸 〈역주(譯註) 조선불교통사〉가 바로 그것이다.

조계종 총무원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지난 1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역주 조선불교통사〉 출간 경찬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전 총무원장 지관스님과 총무원장 자승스님,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 편찬위원장 법산스님, 동국대 교수 보광스님, 제24교구 본사 선운사승가대학장 법광스님, 중앙종회의원 제정스님, 최재성 민주당

“소중한 민족문화유산 창작보다 어려운 일”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했다.

김호성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경찬법회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역주편찬위원장 법산스님이 경과보고를 했다. 이어 역주편찬위원인 법산스님(동국대 교수)과 효탄스님(총무원 문화부장), 김진무 연구교수와 한상길 교수가 〈역주조선불교통사〉를 불단(佛壇)에 봉정하고 발간을 고(告)했다.

전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은 한국불교, 특히 대한불교조계종에 있어 가장 경사스럽고 반가운 날”이라면서 “〈역주 조선불교통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부처님의 정신이 국민의 정신적 양식이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지관스님은 “국판 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쉽게 번역한다는 것은 창작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면서 “방대한 내용을 역주하여 책으로 펴낸 것은 참으로 반갑고 희유한 일”이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치사에서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계인들이 인류의 가장 높은 지혜가 담긴 불교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제 이같은 전통을 계승해서 새로운 미래를 세워야, 한국불교 세계화의 화두를 풀 수 있다”면서 〈역주 조선불교통사〉 발간에 의미를 부여했다.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은 “경찬법회를 한국불교 중심지인 조계사에서 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유구한 불교전통과 빛나는 문화자원이 가득 실린 이 책이 우리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보물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를 조창희 문체부 종무실장이 대독했고, 최순열 동국대 학사부총장은 감사 인사를 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전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전국 본·말사에서 〈

전국사찰·도서관서 구입토록 적극 권장

역주 조선불교통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총무원에서 공문을 보내는 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전 원장스님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조창희 문체부 종무실장은 “전국 공공도서관에 〈역주 조선불교통사〉의 구입을 권유하는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혀, 참석 대중의 박수를 받았다. 조창희 종무실장은 “한국불교의 커다란 업적인 〈역주 조선불교통사〉의 발간을 축하드린다”면서 “이능화 선생이 저술한 〈조선불교통사〉는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내용의 유인촌 장관 축사를 대독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조계종 총무원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지난 1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역주 조선불교통사〉 출간 경찬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편찬위원들이 불전에 역주조선불교통사를 봉정하는 모습. 김형주 기자

‘완간까지 8년’

법산스님 중심…박사인력 대거 참여 본뜻 훼손방지 위해 ‘직역위주 주석’

조선불교통사 역주사업은 2002년에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국학분야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이래 법산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효탄스님(조계종 문화부장), 김진무(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부교수), 한상길(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김치온(동국대 강사), 류화송(충남대 강사) 등 박사급 연구 인력이 역주위원으로 참여하였고, 다수의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이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했다.

난해한 금석문과 방대한 불교문헌자료로 이루어진 원문의 번역과 주석, 해제작업에 5년의 기간이 걸렸으며, 원문 교감과 증의를 거친 오탈자 교정과 통일윤문, 그리고 편집 등에 이르기까지 총 8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였다.

번역에 있어서는 〈조선불교통사〉에 인용된 원 텍스트를 여러 판본들과 하나하나 대조해서 오탈자, 오문, 탈문에 의한 오역을 방지하고자 했으며 지나친 의역으로 인해 원래 뜻이 왜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역을 위주로 하되 꼼꼼하게 주석을 달아 이해를 도왔다.

편집에 있어서는 번역문을 싣고 해당 원문을 그 바로 아래에 실어 쉽게 대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문 주석은 각주로 처리하고 번역문 주석은 따로 미주 처리했다. 김영태 박사(동국대 명예교수)가 감수했다.(출처=편찬위원회)

부산 법륜사 회주 선래스님이 지난 15일 종단의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논산훈련소 군법당 건립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왼쪽부터 총무원 호법부장 상운스님, 군종교구장 자광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선래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정만스님.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우리 시대에 더 크게 지어야 한다”

선래스님, 논산훈련소 법당건립 기금 1000만원 ‘보시’

논산훈련소 군법당 건립기금이 또 다시 답지했다. 부산 법륜사 회주 선래스님은 지난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아름다운동행 이사장)에게 논산 군법당 건립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법륜사 회주 선래스님은 “군승제도가 생겼을 당시 1기생으로 지망하려는 뜻이 있었다”면서 “군법당은 우리 시대에 더욱 크게 지어야 한다”고 기부 배경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법륜사 회주 선래스님을 비롯한) 기부자들의 보시행을 보고 많은 분들이 신심을 내어 모금에 동참하길 바란다”면서 “불사를 위해서는 상(相)을 많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래스님은 기금 전달에 앞서 군종특별교구장 자광스님과 차담을 하면서 “불교신문 기사를 보고 성금을 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했다.

법륜사 회주 선래스님의 군법당 건립기금 전달식에는 군종특별교구장 자광스님, 총무원 호법부장 상운스님, 사서실장 경우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정만스님이 배석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본·말사 주지인사

(11월 4, 9, 10일 종무회의 결과)

혜성스님 광명 전법원 / 현민스님 오산 현암사 / 정운스님 서울 청룡암
묘순스님 서울 삼선포교원 / 종월스님 서울 경국사 / 진묵스님 문경 성불사 / 법인스님 성주 선석사 / 정진스님 대구 진여암 / 능원스님 남해 보리암
동훈스님 대구 삼보사 / 진공스님 해남 금강사 / 대륜스님 고창 상원사 / 법우스님 서울 천축사 / 덕현스님 성남 봉국사 / 성화스님 서울 장안사

원심원사 금강경·지장경 산림법회 및 343일 조상천도법회

귀의삼보 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피와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축원 드리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장성지인 경기도 연천 원심원사에서는 원심원사 복원·중창불사의 원만성취와 선망부모·조상영가님들과 태중영가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343일간 금강경·지장경 산림법회 및 조상천도법회를 봉행합니다.

원심원사는 647년(신라 진덕여왕 원년)에 창건되어 6.25전란으로 소실되기 전까지 1,300여 년간 범일국사와 무학대사 등 수승한 고승대덕들을 배출하였으며, 수많은 기이한 영험과 가피로 인해 전국에서 사부대중의 참배가 끊이지 않았던 한국 제일의 생지장성지로 이제 반세기가 지나서야 어렵게 복원불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장성지의 복원 및 중창 불사를 위해 원심원사에서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0월1일까지 1029일 천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그동안 1차 1029일 천도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석대암에서 수차례 서기방광하는 이적을 나투었으며, 그야말로 황무지에서 많은 불사를 이루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신도님들의 성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겨우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지만 지장성지가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기도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원심원사 복원·중창불사의 원만성취와 선망부모 조상영가와 호국영령 및 태중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양력 10월 22일부터 343일간 조계종 전 총무원장 지관큰스님을 비롯한 제방에 계신 원로대덕 큰스님들을 초청해 모시고 금강경·지장경 산림법회 및 343일 천도재(49재 7번)를 봉행합니다.

특히 각종 정신질환이나 병고로 고통 받는 분들이 하루빨리 쾌차하고, 동참하신 모든 불자님들에게 일체의 마장과 장애가 사라져 소원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8번의 구병시식을 더불어 봉행합니다.

이에 불자님들께서는 이번 원심원사 금강경 지장경·산림법회 및 343일 조상천도법회에 빠짐없이 동참하시어 이 인연공덕으로 모든 소원 성취하시고 무량복덕 이루시어 구경에 성불하시길 바라오며 원심원사 복원·중창불사가 원만히 회향되도록 깊은 신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강경·지장경 산림법회 및 343일 조상천도법회 제1회 49재
2010년 12월 9일(음. 11.4) (목) 9시30분 법사 **도문**큰스님

◎금강경·지장경 산림법회 및 343일 조상천도법회 회향일
2011년 9월 29일(음. 9. 3) (목) 9시30분

▮금강경·지장경 산림법회 및 343일 조상천도법회 일정표▮

산림법회 및 49재/*구병시식 일정			법사큰스님
*입재법회	2010년 10월 22일 (음 9. 15)	금요일	**지관** 큰스님
*1회 49재	2010년 12월 9일 (음 11. 4)	목요일	**도문** 큰스님
*2회 49재	2011년 1월 27일 (음 12. 24)	목요일	**지성** 큰스님
*3회 49재	2011년 3월 17일 (음 2. 13)	목요일	**무진장** 큰스님
*4회 49재	2011년 5월 5일 (음 4. 3)	목요일	**지하** 큰스님
*5회 49재	2011년 6월 23일 (음 5. 22)	목요일	**묘허** 큰스님
*6회 49재	2011년 8월 11일 (음 7. 12)	목요일	**도영** 큰스님
*7회 49재	2011년 9월 29일 (음 9. 3)	목요일	**혜인** 큰스님

◎ 343일 금강경산림법회 및 조상천도법회 동참금 : 오십만원 [49재 7번 / *구병시식 8번]
※ 친가[시댁]와 처가[친정]의 4대조(고조부모 이하) 영가까지(태중영가 포함) 위패를 모시고 343일 천도재를 봉행하오니 문의하신 후 영가명단을 원심원사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은 혼잡하오니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 : 전화 031-834-8467
팩스 031-834-8469
● 계좌번호 : 농협 044-01-117828(예금주 : 원심원사)
● 오시는 방법 :
※ 서울(조계사 앞) 오전 7시 출발(예스관광, 011-227-4700)
※ 서울(수안사 앞) 오전 6시 30분 출발(막차 동두천역 경유) (수안사 : 02-587-4677)
※ 서울(종합운동장역 1번, 2번 출구) 오전 6시 50분 출발
※ 1호선 전철 동두천역 : - 원심원사행 차량운행(수시)
- 예스관광(오전 8시 30분)
※ 연천역 : 원심원사 차량 수시 운행
※ 대전 042-257-2400 / 011-403-8717 (귀빈항공)
※ 대구 053-254-9957 / 010-2280-9957 (공덕화보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354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원심원사 주지 세 민 합장